그린수소 생산 설비 · 중장비 부품 제조기업 투자

새만금청, 이앤하이솔루션 · 강진산업 등과 협약 체결… 총 152억 투자 연내 착공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이 17일 전북도와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이앤하이솔루션의 '그린수소 생산 탄소자원화 설비 제조시설', ㈜강진산업의 '중장비 부품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앤하이솔루션은 오는 10월 새만금산업단지 2만9000㎡ 용지에 1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4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기업은 올해 4월 설립된 신규 법인으로, 탄소자원화 기술을 보유한 미국 리카본(ReCarbon)사의 제조 협력사인 ㈜효진오토테크, ㈜에코하이테크, ㈜에스앤티가 참여해 설립했다.

탄소자원화는 온실가스(CO2+CH4)를 고부가가치 합성가스(H2+CO)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새만금 공장에서는 수전해(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 장치와 탄소자원화 설비를 생산해 그린수소 생산업자와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사업장에 공급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기영 이앤하이솔루션 대표는 "신속한 투자를 통해 국내 최고 경쟁력을 갖춘 그린수소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이 협력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 강진산업은 오는 9월 새만금산업단지 10만3000㎡ 용지에 52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36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이 기업은 2016년 설립된 굴착기용 버켓 등의 기계장비 제조 기업으로 23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신제품 개발에 따른 생산체계 확대를 위해 새만금에 제2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버켓은 중장비 등에 부착해 땅을 파는 굴착 작업, 토사를 운반하는 적재 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 작업 등에 활용된다.

김완식 강진산업 대표는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우수한 환경을 갖춘 새만금에 투자하게 되어 기쁘고,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이들 기업은 새만금에 건설기계부품 연구원이 입주해 있고,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 조성도 예정돼 제품의 연구개발과 실증 등이 용이하다는 점과 도로·항만·공항 등의 물류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을 높이 평가해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현 청장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새만금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두 기업과 새만금의 상생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뉴시스

부안수협은 지난 16일 부안군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꽃게의 자원조성을 위하여 꽃게 치어방류 사업을 가력도항에서 실시했다.

부안 꽃게 자원 조성 위해

부안수협, 가력도항서 꽃게 치어방류

도 · 부안군 · 한국해상풍력 등 참여

부안수협(조합장 송광복)은 지난 16일 부안군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인 꽃게의 자원조성을 위해 꽃게 치어방류 사업을 가력도항에서 실시했다. 〈본보 8월 17일자 1면〉

이번 행사는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전력과 한국해상풍력에서 민관협의회 요청에 따라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수산자원 조성기금 3.5억원(한국전력공사 1.5억원, 한국해상풍력 2억원)을 지원하여 전북도, 부안군, 부안수협, 한국전력, 한국해상풍력, 민간협의회의 참여로 방류행사를 실시했다.

부안수협은 수산자원 조성기금으로 꽃게 종자를 구입해 방류했으며, 지난달 22일은 넙치종자, 27일은 조피볼락을 방류해 올해 3번의 방류를 실시했다.

부안수협 송광복 조합장은 "부안군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장 축소로 소득이 감소하는 어민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방류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돼 업체에 감사를 표하고 남은 사업비 1억2,700만원을 민관협의회와 협의해 하반기 방류사업에도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최종필 전북 서남상의 회장 섬유유연제 300상자 기탁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최종필 회장(신정주포장 대표)이 17일 정읍시에 420만원 상당의 섬유유연제 300상자를 전달했다.

기탁된 섬유유연제는 지역 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 사회복지 시설 44개소에 골고루 전달할 예정이다.

최종필 회장은 "여름철 어르신들의 쾌적한 빨래 위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나눔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우리 이웃을 위해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재확산과 무더위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종필 회장은 북면 3산업단지에서 골판지 제조업인 (유)신정주포장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는 제24대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회장을 맡아 정읍시와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4개 지역 상공인들의 소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 농관원, 내달 9일까지 추석 선물 원산지 표시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남원사무소 9월 9일까지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7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24명을 투입, 먼저 올해 이른 추석에 맞춰 17일부터 28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제조·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에게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 중인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29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수요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통신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사이버전담 요원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SNS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 위주로 현장을 점검하고,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대표 스타트업 투자 행사 '팡파르'

'2022 투자팡팡위크' 전북테크비즈센터서 30일부터 3일동안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는 도내 대표 스타트업 투자 브랜드 구축과 혁신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2022 전라북도 투자팡팡위크'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30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 전북테크비즈센터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는 전라북도 투자팡팡위크는 도내 우수 유망 스타트업 대상 국내외 벤처투자 유치를 위한 '전라북도 대표 스타트업 투자행사'이다.

㈜효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북은행, AVPN한국대표부 전라북도 소재 5개 대학이 협력하며, 사전 선정기업에는 1:1 투자유스톱 패키지, 디자인 제작 등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IR자료 고도화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전북창조센터는 전북 주력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망 스타트업 60여개사의 단계별(예비, 초기, 시리즈), 분야별(연구소기업, 농생명, 소셜벤처 등) 투자설명회(IR)와 1대 1 투자 상담, 네트워킹, 특별강연, 투자협약식, 펀드결성식 등 도내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위한 행사를 연다.

효성-전북 투자벤처로드쇼, 전북혁신투자 딜라이브 등 총 7개 분야에 60여개사와 도내 외 70여명의 투자자가 참여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라운지를 운영해 사전/사후 투자자 매칭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31일 열리는 네트워킹 행사 '전북 투자자의 밤'은 전북 관련 국내 투자사와 기업 간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9월 1일에는 예비·초기창업자와 대학생,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이 펼쳐진다. '세상을 바꾸는 투자'를 주제로 투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박광진 센터장은 "전북지역의 자생적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고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긴밀한 네트워크인 투자팡팡위크를 올해도 열게 됐다"며 "투자자들이 전북을 더욱 많이 방문하고, 투자하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투자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강에 참여하고 싶은 도민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육성팀(063-220-8903, 8914)에 문의하면 된다. /뉴시스

남원축협,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남원축협(조합장 강병무)은 최근 회의실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범죄유형과 피해사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수법이 다양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원축협은 날로 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규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카카오톡을 통한 자녀사칭사고, 개인정보 탈취, 수사기관 범죄연루 현금 인출 유도 등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수법과 피해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금융기관 사칭 대출 및 상품결제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에 포함된 URL과 발신 전화번호 클릭을 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고령층과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사고예방에 주의 할 것을 당부했다.

강병무 조합장은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무너트리는 악랄한 범죄로 다양화·고도화된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면서, "금융사기 피해 ZERO를 위해 더 많은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여성새일센터, 여성창업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전정희)는 오는 26일까지 여성 창업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

여성창업 아카데미는 창업 관련 기초역량 강화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비즈니스모델 정립을 위한 사전학습을 지원하는 과정으로,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1일 4시간씩 총 16시간의 창업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구성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이번 교육은 △최신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창업아이템 발굴 △창업지원정책 및 제도 안내 △정부지원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으로 구성됐다.

전정희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기존 창업 교육과는 달리 철저히 아이디어 구체화와 비즈니스모델 수립에 집중하고, 또 도출된 아이템이 실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인지 고민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여성창업 아카데미를 통해 여성들만의 감수성 및 창의성 등의 강점을 활용한 성공 창업에 도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